



# 평화혁명에서 독일통일까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5·18기념재단은 통일교육원의 협력 하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과 신연방주 특임관의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 외견상 안정



동독의 국가원수이자 당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가 1987년 9월 7일 서독의 연방총리청 청사 앞에서 군대의 사열을 받으며 당시 서독의 연방총리였던 헬무트 콜(좌측)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 로타 샤크(Lothar Schaack), BArch, B 145 Bild 00010687

## 혁명 직전의 동독

1987년 9월 7일 서독의 수도 본(Bonn)을 방문한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총리의 환영을 받았다. 잠시였지만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듯 했다. 그러나 동독이 서독과의 철저한 분리정책을 추진하며 서독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모스크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가 선언되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이 정책을 통해 소련의 개혁과 서구진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소련은 동맹국가들에게 단계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해주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변화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과거 소련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던 동독은 갑자기 소련 영화나 소련 잡지인 “스푸트니크(Sputnik)”를 금지시켰다. 이들 매체가 스탈린주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었다. 동독은 자신이 속한 동구권 내에서 점점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SED) 당원들조차 지도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독의 당 지도부는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호네커는 1989년 초 동서독 간 장벽이 앞으로 50년이나 100년은 끄덕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 불만



1981년 11월 촬영한 비터펠트(Bitterfeld) 산업지구의 스냅사진이다.

사진: 하랄드 슈미트(Harald Schmitt),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위기에 빠진 경제와 사회

동독이 겪던 경제적 어려움은 1980년대 들어 건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마당에 널려있는 회색 빛 빨래나 뿌연 하늘은 동독의 일상이 되었다. 회색 빛을 띠는 것은 낙후된 도시들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외곽에는 (저렴한 조립식 아파트단지인) 플라텐바우(Plattenbau) 단지들이 급속도로 커졌다. 비효율적인 계획경제는 저가로 제공된 소련의 석유와 서독의 차관에 의존해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1961년 장벽이 설치된 이후 외부와 차단되어 버린 동독 사회는 특혜를 받거나 서독 화폐를 가진 사람들과 갈수록 판매할 상품이 부족해진 상점 앞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야만 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동독에서의 삶은 감시와 규제 아래 놓여 있었고 대체로 국가가 정해진 대로 따라야만 하는 삶이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커졌다. 동독 주민들은 저녁마다 (서독의 방송사인) ARD나 ZDF의 방송을 시청하며 몇 시간씩 서독을 여행했다. 물론 일상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늘 국가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연기하며 집에 국기를 게양하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며 대중조직과 정당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였다. “너희는 우리를 따르는 척하며, 우리는 너희를 믿는 척한다.” 이것이 동독 정권의 표어인 듯 했다. 실제로 정부와 당 지도부는 동독 주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

# 기만



동베를린의 한 개표소에서 동독 저항세력의 대표들이 1989년 5월 7일 지방선거 개표현장을 감시한다.

사진: 클라우스 메너(Klaus Mehner),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지방선거 조작을 폭로하는 저항세력

1989년 5월 7일 일요일이었다. 동독에서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지지를 확인시켜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계획이 달리 서독 TV에서나 방영될 법한 선거-범죄 수사영화의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젊은 남녀가 카메라 앞에서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선거조작을 고발했다. 동독 전역 수백 개의 개표소를 시민운동가들이 감시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동독 주민들은 평화, 인권, 환경 운동 단체 및 제삼세계 단체가 결성한 네트워크의 존재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많은 단체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결성되었었고 점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었다. 몇몇 그들의 활약들은 이미 주목 받고 있었다. 동독의 저항세력은 공동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당과 국가의 거짓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과 국가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시민운동가들이 제출한 진정서와 고발장의 홍수 속에서 손을 쓰지 못했다. 게다가 동베를린, 라이프치히 등을 비롯한 동독 곳곳에서 매일 7일에 선거조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1989년 6월 4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는 대대적 유혈사태가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동독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반면에 사회주의통일당(SED) 지도부는 이를 적절한 대응이라 여겼다.

# 이별



동독 출신의 한 커플이 부다페스트 칠레베르츠(Csillebérc) 난민수용소로 향하고 있다. 이 수용소에는 이미 1천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동독을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다. 1989년

사진: SZ Photo / ap / dpa / picture alliance

## 동독을 떠나려는 사람들과 대대적 탈출

처음에는 소수만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고 그 외 대다수는 동독 개혁에 대한 희망을 버린 상태였다. 1989년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서독으로 가기 위해 출국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동독을 떠나려고만 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운동가들을 따라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Nikolaikirche)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1989년 2월 6일 스무 살의 크리스 귀프로이(Chris Gueffroy)가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베를린 장벽에서 사살되었다. 같은 해 여름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거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지만 8월에는 약 3천 명의 동독 주민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향했다. 9월 11일 헝가리가 동독 주민에게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사흘 만에 1만5천 명이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갔다. 또한 동독 주민들은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에 위치한 서독 대사관 그리고 동베를린 내 서독의 상주대표부로 향했다. 9월 말에는 6천 여명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에서 출국하기 위해 대기했다. 동독 정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다. 호네커는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당기관지인 “신독일(Neues Deutschland)”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해 “떠난 자들을 위해 울 것 없다.”며 냉소적 입장을 밝힌다.

# 궤기



1989년 9월 4일 저녁, 수백 명의 동독 주민이 라이프치히 시내에서 여행의 자유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개방된 나라”를 요구한다.

사진: picture alliance / dpa

## 시민운동의 조직화

동서독 간 장벽이 설치된 이후 가장 큰 동독 탈출 물결이 일어나면서 쇠신하지 못한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역사적인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7월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9월 “혁신 89(Aufbruch 89)”라는 제목의 창당선언문을 발표하며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이 탄생하였다. 그 외에도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또는 “민주혁신(Demokratischer Aufbruch)” 등이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하였다. 서독 언론사들이 동독에 파견한 특파원들은 동독 및 서독에서 저항운동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989년 9월 4일, 시민운동가와 동독을 떠나고자 하는 동독 주민 1천 여명이 평화시위 원칙에 따라 교회 앞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개방된 나라”를 요구하면서 라이프치히 월요시위가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89명이 인민경찰에 체포되고 그 중 19명은 금고형에 처해졌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한 동독 전역에서 개최된 기도회와 예배 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연대하였다. 분노가 커졌다.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는 나가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동독을 떠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남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 자기 기만



동독 건국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1989년 10월 6일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요제 기리바스(Jose Giribas), SZ Photo

##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한 당과 국가 지도부

동독 정권은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1989년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를 준비하였다. 바르샤바와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에서 서독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동독 주민들은 40주년 행사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결국 동독 정부는 9월 말 프라하 주재 대사관에서 대기 중이던 6천 명의 동독 주민들에게 특별열차를 타고 동독 영토를 통과해 서독에 가도록 허락하였다. 동독은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 했지만 그 노력은 허사가 된다. 10월 4일 드레스덴 주민 3천 여명이 중앙역에서 특별열차에 탑승하려다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10월 7일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은 대규모 행진과 군사 퍼레이드 및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에서의 화려한 축하이벤트로 구성된 과시용 건국기념일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동독 정권은 바로 그 당일에도 시위를 막지 못했다.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에서 전 세계 공산주의 정권과 당의 주요 인사들이 동독 건국기념일을 축하하는 동안 동베를린에서는 인민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수천 명의 시민들을 향해 곤봉을 휘둘렀다. 건국기념일에 초대된 인사 중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도착하자마자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늦는 자는 벌을 받는다.”

# 결정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 평화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진: 헤이키 사우코마(Heikki Saukkomaa) / picture alliance / Lehtikuva

## 10월 9일 평화적으로 진행된 라이프치히 월요시위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일 이후 월요일, 라이프치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매주 월요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사회주의통일당(SED)은 건국기념일 행사를 마친 직후 폭력으로 대응할 것인가? 도시 외곽에는 군용 차량이 대기했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학생과 직원들에게 저녁에 도심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병원도 비상 사태에 대비했다. 오후 5시, 라이프치히 도심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경고를 했지만 저녁이 되자 7만 명이 니콜라이 교회(Nikolaikirche) 주위로 몰려들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다. 수만 명의 사람이 도심순환도로를 따라 행진했다. “우리가 국민이다!” 그리고 “폭력 금지!”라는 구호가 라이프치히 시내에 울려 퍼졌다. 정부와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지역 지도부가 경찰력 투입을 차마 명령하지 못하자 저녁 6시 25분 인민경찰청장이 대기 중이던 무장 경찰을 해산시켰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리로 나갔던 7만 명의 익명의 영웅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다음 날 저녁 서독 TV 방송을 통해 동서독 전역에 공개되었다.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 변혁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 시위대는 “민주주의는 지금(Demokratie jetzt)”을 요구한다.

사진: 클라우스 메너(Klaus Mehner),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살아남으려는 사회주의통일당(SED)

플라우엔, 드레스덴, 칼 막스 슈타트, 할레를 비롯해 수많은 소도시와 마을에 이르기까지 동독 전역에서 계속해 새로운 시위가 일어났지만 사회주의통일당(SED) 지도부는 9일이 지난 후에야 반응을 보였다.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의 후임자인 에곤 크렌츠(Egon Krenz)는 고작 이틀 전에 다른 정치국원들과 함께 호네커의 퇴진에 대해 논의할 용기를 냈다. 모스크바에서는 고르바초프가 “행운을 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는 사회주의통일당(SED)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했다. 크렌츠는 정치적 “변혁”을 선언한다. 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통일당(SED) 정권을 살려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호네커의 황태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었고, 불과 얼마 전 베이징에서 일어난 유혈사태를 정당화했던 크렌츠를 신뢰하지 않았다. 동독의 경제는 지불불능 상태가 되었다. 동독에 재정을 지원하던 서독의 기관 및 단체 등은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주민들의 압박이 커졌다. 11월 4일 동베를린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11월 7일 동독 정부가 물러나고 다음 날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이 해산되었다. 새로운 여행법을 위한 초안이 작성되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둔 이 초안에 반대하며 라이프치히에서만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불만을 표출하였다.

# 장벽붕괴



1989년 11월 10일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 앞 베를린 장벽의 모습이다.

사진: 클라우스 메너(Klaus Mehner),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전망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1989년 12월 3일 동독의 개혁을 요구한다. 반면 자전거를 탄 사람은 즉각적 통일을 주장한다.

사진: 라이너 외텔(Rainer Oettel), picture alliance

## 세상을 바꾸어 놓은 11월 9일 밤

1989년 11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였다. 독일의 주요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사우(Tagesschau)”의 시그널음악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TV 앞으로 몰려들었다. “동독이 국경을 열다”가 톱뉴스로 보도되었다.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여행규정을 발표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독방문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다. 언제부터 서독방문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즉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타게스사우(Tagesschau)”는 “밤 사이 장벽이 개방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동베를린 여기 저기에서 사람들은 외투를 입고 다소 망설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서독 경계의 검문소로 향했다. 보른홀머 거리(Bornholmer Straße)의 검문소에는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밤 11시 경이 되자 2만 명에 달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그리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는 구호가 거리를 울린다. 20분쯤 지나자 검문소 담당자가 모여든 인파의 요구에 항복하고 만다. 차단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베를린 내 다른 검문소를 비롯 동서독 간 경계의 모든 검문소가 이내 개방된다. 베를린 거리는 얼굴에 기쁨의 미소와 감격의 눈물이 가득한 체 서로를 얼싸안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 독일문제(Deutsche Frage)

동서독 간 장벽이 개방되자 독일통일을 둘러싼 독일문제(Deutsche Frage)가 세계정치권의 주요 의제가 된다. 빌리 브란트는 장벽붕괴 다음 날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다. 1989년 11월 28일 헬무트 콜 독일연방총리는 “10개항 계획(10-Punkte-Programm)”을 발표한다. 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내 동서독 간 연방제를 이루는 방식으로 통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폴란드는 서쪽 국경 문제를 우려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새롭게 막강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걱정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결실들을 상실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미국만이 독일의 통일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동독이나 서독에서는 통일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지성인층에서 반대했다. 11월 28일 “우리 나라를 위하여”라는 기사를 통해 동독 지역에 “연방공화국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 형태의 체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더 이상의 실험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11월에 동독의 총리가 된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와 함께 12월 19일 드레스덴을 방문한 콜 총리는 독일 국기를 들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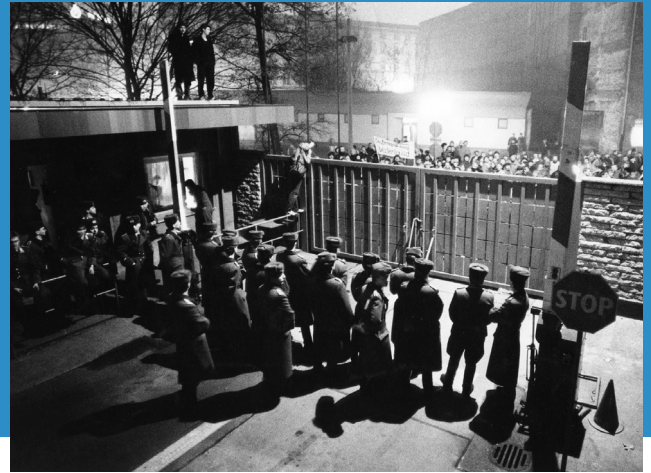
## 전환



1989년 12월 7일 동베를린 본회퍼 하우스(Bonhoeffer Haus)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의 구성원들이다.

사진: 클라우스 메너(Klaus Mehner),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권력상실



1989년 12월 4일 슈타지의 라이프치히(Leipzig) 본부 앞에서의 시위 모습이다.

사진: 볼프강 베버(Wolfgang M. Weber), picture alliance / ullstein bild

### 동독의 자발적 민주화의 동력이 된 시민운동가들

장벽이 개방되자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당 간부들은 줄줄이 사퇴하였고 당원 수십 만 명이 탈당했다. 기독교민주당(CDU)과 독일자유민주당(LDPD)과 같은 정당들은 독립성을 갖게 되었다. 1989년 12월 1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지배권에 대한 헌법 규정이 삭제되었다. 12월 8일/9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민주사회당(PDS)”으로 이름을 바꾸며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자를 잃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동독에는 여전히 38만 명의 소련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며 국가기구 및 “무장기관”의 요직에는 사회주의통일당(SED) 당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었다. 시민운동가들은 단계적으로 통제 및 결정 권한을 쟁취해나갔다. 그리고 1989년 11월 22일 동베를린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신 정치세력과 구 정치세력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저항세력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자유선거, 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슈타지의 해산이었다. 연말까지 여러 곳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이 권력 및 행정 기관의 운영을 감시하였다. 1990년 2월 5일 시민운동가 8명이 모드로우 정부의 무임소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슈타지(Stasi)의 종말

동베를린 노르만 거리(Normannenstraße)에 위치하며 에리히 밀케(Erich Mielke)가 이끌던 슈타지 본부가 점령되면서 1990년 1월 15일 슈타지, 즉 동독 국가보안부(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는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1989년 10월에만 해도 9만 명의 공식요원과 17만4천 명의 비공식요원이 활동했다. 11월 13일 인민회의에서 슈타지의 수장이었던 에리히 밀케가 당황하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변명하였고 슈타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모드로우 정부는 슈타지를 국가안보청(Amt für Nationale Sicherheit)으로 이름을 바꾸어 살려보려했다. 12월 초 슈타지가 방대한 양의 문서를 대대적으로 폐기한다는 제보가 계속해 들어왔다. 시민운동가들은 12월 4일 슈타지의 에르푸르트(Erfurt) 지역본부를 점령하고 기타 지역본부들도 줄줄이 점령했다. 12월 9일 슈타지의 게라(Gera) 지역본부는 슈타지를 점령하려는 시민운동가들에 무기와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1990년 1월 11일 한스 모드로우는 라운드 테이블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름을 바꿔 슈타지를 존속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독 주민들은 슈타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관한 기록과 문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슈타지 문건의 열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했다.

## 승리



드레스덴(Dresden)의 선거전 모습이다. 1990년 2월 14일.

사진: 울리히 헤슬러(Ulrich Häbler). BArch, Bild 183-1990-0214-026

###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를 통해 확실해진 동독 평화혁명의 승리

1990년 3월 18일 일요일 개표가 마감되고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동독에서 실시된 최초이자 유일한 자유선거 결과,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48%가 동독 기독교민주당(CDU), “민주혁신(Demokratischer Aufbruch)” 그리고 “독일사회연합(Deutsche Soziale Union)”으로 구성된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당에 투표하였다. 시민운동의 주도세력들이 결성한 당들은 단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중 거의 22%가 선거에 앞서 성급하게 승리를 확신했던 동독의 사회민주당(SPD)에 돌아갔다. 자유동맹(Liberalen)이 5%, 민주사회당(PDS)이 그래도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것은 통일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었다. 사회민주당(SPD)이나 시민운동세력이 결성한 정당들도 독일의 통일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통일을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은 “독일을 위한 동맹” 당이었다. 게다가 “독일을 위한 동맹”당은 동독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동독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클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90년 4월 12일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총리의 주도 하에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 사회민주당(SPD) 그리고 자유동맹(Liberalen)으로 구성된 대연정이 결성되었다. 자유선거 결과 평화혁명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 제도통합



동베를린 프리드리히 거리(Friedrichstraße)의 도시고속전철(S-Bahn) 역의 모습이다.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사진: 하랄트 하우스발트(Harald Hauswald).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 Ostkreuz

###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을 통해 동독에 도입된 서독 마르크(D-Mark)

드 메지에르(de Maizière) 정부는 산적해있는 난제들을 풀어야만 했다. 동독 주민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 동독을 서독에 편입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정치적 개혁을 추진, 경제 상황과 특히 공급 상황을 개선, 서독과 함께 통일을 위한 양자 조약 및 국제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매일 같이 2천 명의 동독 주민들이 짐을 싸서 서독으로 향하는 상황 속에서 동독과 서독 정부 모두 압박을 받았다. 서독은 동독 주민을 수용할 역량이 다 소진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동독에서는 1989년 여름 이래 동독을 떠난 55만 여명 주민의 빈자리만 남았다. 거리에는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면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이 199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하루 밤 사이 서독 마르크와 함께 시장경제가 엘베 강(Elbe)과 오더 강(Oder) 사이에 위치한 동독에 유입되었다. 동독 국가소유의 재산은 모드로우(Modrow)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신탁청(Treuhandanstalt)을 통해 민영화될 것이었다.



1990년 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은퇴한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는 서독 사람들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한다고 광고한다.

사진: 게오르그 슈프링(Georg Spring), picture alliance

## 1990년, 서로를 알아가고 지원하는 동서독 주민들

1990년 초 동독 주민 100명 중 85명이 통일에 찬성하고 서독 주민의 70%가 통일을 원했다. 그리고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독일 전역이 호기심과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방문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00마르크 상당의 환영금이 동독 주민들에게 지급되었고, 독일인들의 연대정신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서독의 수많은 연방주, 지자체, 정당, 협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이 동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동독 지역이 민주주의 체제로 개편하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적, 전문지식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만 해도 아직 “잘난 체 하는 서독인(Besser-Wessis)”과 “불평 많은 동독인(Jammer-Ossis)”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고와 회의적 입장이 제기되었지만, 대다수의 동독 주민들은 머지 않아 “꽃피는 풍경”이 펼쳐질 것이라 믿었다. 동독 주민들에게는 오랜 세월 꿈꿨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와 스페인의 마요르카섬에서 이전에는 들어보기 힘들었던 (동독) 작센지역 역양의 독일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차라는 차는 모두 구매하였다. 과열된 기대감 때문에 심지어 오이, 겨자소스 또는 밀가루조차 서독 것이 동독 것보다 더 맛있는 듯 했다. 아직 오스탈기(Ostalgie,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캅카스 아키스(Archys)에 위치한 고르바초프의 여름별장 근처에서 1990년 7월 15일 서독의 콜 총리(우측), 소련의 고르바초프(중앙) 국가원수이자 당 서기장 그리고 서독의 겐서 외무장관의 모습이다. 서독 총리의 소련 방문 중 고르바초프는 통일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과 NATO 잔류에 동의한다.

사진: 로베르토 파일(Roberto Pfeil), 연방정부

## 독일 통일에 동의하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

1990년 중반에만 해도 독일통일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에 마지막 벽돌 하나가 빠진 상태였다. 즉, 독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던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다. 동서독은 서로 다른 동맹체제에 소속된 상태였고, 동서독에는 각 동맹체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안보 관련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5월부터 동서독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외무장관들이 2+4 협상을 진행하였다. 6월 21일에는 동독의 인민의회와 서독의 연방의회가 동일한 성명을 통해 폴란드 서쪽 국경이 불가침하다고 선언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통일독일이 어떤 동맹체제에 속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헬무트 콜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데 성공하였다. 7월 16일 서독과 소련의 수장은 소련이 통일독일의 NATO 잔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9월 12일 2+4 조약이 체결되면서 독일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통일로 향하는 길 위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 의결



1990년 8월 23일 인민의회 의원 294명이 1990년 10월 3일 발효되는 동독의 서독 편입을 찬성하였다. 62명은 반대하였다.

사진: 미하엘 웅(Michael Jung), picture alliance

### 기본법의 효력범위에 동독의 편입을 의결한 인민의회

1990년 초부터 독일통일의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기본법 제14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기본법의 효력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8월 23일 인민의회는 압도적 다수로 기본법 제23조에 입각해 동독이 1990년 10월 3일 독일 기본법의 효력범위에 편입한다고 결정하였다. 40년 동안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서독이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기본법을 선택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8월 31일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기본법 개정 문제, 사법통합 및 동독의 공공행정 문제, 재정을 비롯한 노동, 사회, 여성, 문화 분야의 문제들에 관하여 규정한다. 통일독일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 등과 같이 논란이 많은 문제는 유예하거나 추가의정서에서 다루었다. 슈타지 문서 열람 문제 역시 그 중 하나였는데, 동독 시민운동가들이 단식투쟁으로 문서 열람권을 쟁취해냈다.

## 통일



1990년 10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밤,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통일 축제” 장면이다.

사진: 에르하르트 판제그라우(Erhard Pansegrau), picture alliance / akg-images

### 1990년 10월 3일, 과거가 된 독일의 분단

1990년 10월 3일 자정, 독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의회 의사당에 통일독일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동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의 분단이 극복되었다. 수백만 명이 의사당 주위에 모여 독일의 통일을 축하하였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주변 거리와 광장을 밝혔다.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독재를 동독 주민들이 무너뜨린 지 일년이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다.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혁명과 자발적 민주화는 통일의 길을 열어주었고, 1990년 통일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독일 국민들이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국경을 상호 인정 하는 가운데 독일은 이웃국가들과 우호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의 변혁은, 공산주의 독재와 유럽 분단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 동유럽 평화혁명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1989년은 유럽 평화의 해가 되었다.



2008년 12월 4일,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 터에 위치한 라트하우스브뤼케(Rathausbrücke) 다리의 벽면에 대문자로 “동독은 존재한 적 없다”고 쓰여 있고, 그 뒤로 베를린 대성당(Berliner Dom)이 보인다. 아르노 부르기(Arno Burgi) 사진작가의 이 사진은 2009년 “올해의 dpa 사진(dpa-Bild des Jahres)”으로 선정되었다.

사진: 아르노 부르기(Arno Burgi), picture alliance / dpa

## 동독은 실제로 존재했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과 신연방주 특임관(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은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정권과 독일 분단의 역사와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재청산재단은 독일 전역에서 연간 15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독재청산재단은 프로젝트 지원뿐 아니라 자체 행사 기획과 출판물 발간을 통해 독일의 기억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연방주 특임관 역시 이에 참여하고 있다. 신연방주 특임관은 더 나아가 연방정부의 모든 결정과 조치에 동독지역 주민들의 특수한 이해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출판정보:

### 만든이:

역사학자 울리히 멜레르트(Dr. Ulrich Mählert)가 사진전 “평화혁명에서 독일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컨셉 구성, 텍스트 작성, 사진 검색을 담당했습니다. 전시의 레이아웃은 라이프치히 출신의 그래픽디자이너인 토마스 클렘(Dr. Thomas Klemm) 작가가, 그리고 제작 및 유통은 Vögel Druck + Verlag사가 담당했습니다.

### 감사의 말:

사진과 복제본 등을 제공해준 모든 기록보관소, 박물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dpa 통신의 이미지에이전사인 picture alliance 및 Süddeutsche Zeitung Photo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재청산재단의 본 전시를 추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주의사항:

사진, 영상, 텍스트를 비롯한 전시의 모든 구성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 수정 또는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저작권 그리고/또는 활용권이 침해되었나요? 아니면 전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시겠습니까? 울리히 멜레르트(Dr. Ulrich Mählert)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email: buero@bundesstiftung-aufarbeitung.de)

출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신연방주 특임관

한글본 발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번역: 안미라

Wir fordern  
Freie Wahlen

## Von der Friedlichen Revolution zur deutschen Einheit

Entwicklung der Bundesregier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und des Zusammenbruchs der DDR-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2

### Scheinstabilität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3

### Anzufriedenheit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4

### Betrug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5

### Abschied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6

### Aufbruch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7

### Selbstbetrug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8

### Entscheidung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9

### Wendungen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0

### Mauerfall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1

### Perspektiven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2

### Übergang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3

### Entmachtet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4

### Triumph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5

### Angleichung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6

### Solidarität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7

### 2 + 4 = 1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8

### Beschlossen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19

### Vereint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

20

### Die Herausgeber

Die DDR-Regierung versuchte, die Bevölkerung durch Propaganda und Zensur zu täuschen. Die Menschen lebten in einer Scheinstabilität, die nur durch die Repressionen der SED-Regierung aufrechterhalten wurde.